

## 육계 계약사육의 올바른 이해와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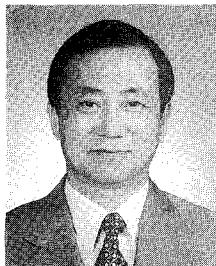
# 육계농가와 계열업체는 진정한 산업의 동반자로 발전해야...

**지**난 10년동안 육계 관련 산업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정부 차원의 전업육계농가 지원정책에 힘입어 육계 농가의 시설개선이 대폭으로 이루어지고 사육규모도 대규모화되어 육계 산업의 저변이 확대, 발전되었다. 또한 계열화업체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 육계산업 전체에 대한 큰 틀이 만들어 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계열화업체가 성장하면서 소규모 유사계열업체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이를 업체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도 많이 감소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반면에 육계농가와 계열업체와의 동등한 위치에서의 협력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일부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육계산업 전체가 안정되었고 계열업체와 농가가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발전적인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기



김 인 식  
(주)체리부로식품 대표이사

간도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계열업체와 유통업체들이 도산하고 주인이 바뀌는 어려운 과정도 많이 발생하였다. 몇몇 재벌그룹 계열사도 육계산업에 진출하였다가 경영 부실로 도산한 예도 있고,

많은 중소규모의 도계 또는 계열업체도 육계 산업계에서 퇴출당하는 과정을 겪었으며, IMF라는 국가적인 시련도 함께 겪었던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오면서 육계업계도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고 육계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육계농가, 종계부화업체, 사료업체, 계열업체등이 상호 협조적인 관계로 안정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육계산업에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태국 등의 예를 보면 계열화업체들이 육계산업 전체를 리드하고 있으며, 더불어 육계농가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전업농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한국도 계열업체의 점유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선진국형의 구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계열업체에서 계약사육하는 육계의 사육물량이 전체의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계열업체가 일반농가에서 구매하여 유통시키는 물량까지 합한다면 70%를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아무튼 이러한 추세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단, 계열업체와 육계농가가 서로 신뢰하고 상호 공동발전할 수 있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어떻게 공고히 하느냐하는 과제가 남아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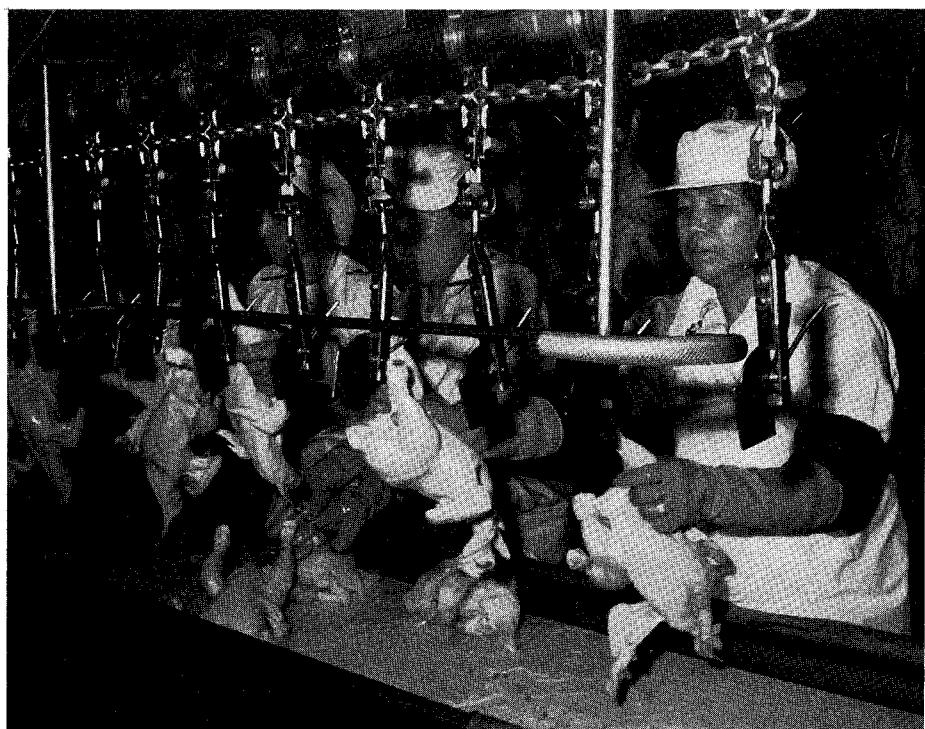
육계산업은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섬세한 산업이다. 수요 또는 공급의 작은 차이에도 시세가 대폭으로 변화하는 독특한 산업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본력만으로 이 산업에 진출하였던 많은 회사들이 중도에서 포기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육계농가도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계열업체와 육계농가간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또한 몇몇 계열업

체들은 육계농가를 종속적인 관계로 보고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육계농가로부터 반감을 사는 불행한 경우도 있었다.

육계산업은 미래가 밝은 성장산업이다. 닭고기의 소비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모두 합심하여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미국, 태국, 중국 등으로부터 밀려오는 수입닭고기에 우리의 농장과 식탁을 내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계열업체는 육계농가를 산업의 발전을 같이 만들어갈 동반자로 생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리드해 나가야 하며, 상호신뢰를 쌓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의 근간이 되고 기반이 되는 농가의 안정이 없이는 이 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가에 대한 호칭부터 위탁농가 또는 계약농가 대신 “협력농가”로 불리어져야 한다. 육계농가는 의존적이거나 배타적인 사고를 버리고 진정으로 산업의 한 축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을 해야한다.

우리는 일본이라는 큰 시장을 가까이에 가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생산하는 닭고기의 2배를 수입하고 4배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일본이 수입하는 닭고기는 거의 모두가 냉동육이고 자국산은 신선육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고품질의 신선육을 수출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며, 현재 모

계열업체에서 신선육을 시험단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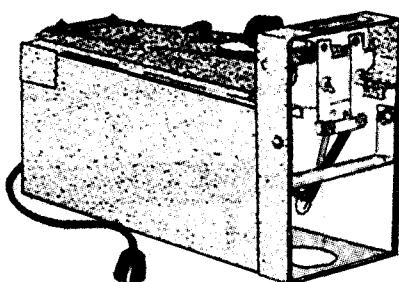
이러한 거대한 시장에 우리의 닭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육계업계 전체의 안정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적 협력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계열업체에서는 건강한 병아리와 우수한 사료를 공급하고 육계농가에서는 질병없이 사육하여 고품질의 닭고기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육계농가와 계열업체와의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가 되어서도 않되고, 배타적인 경쟁관계가 되어서도 않된다.

육계산업을 만들어가는 책임있는 두 개의 축으로서 공동발전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가 되도록 서로 노력해 가야만 한다. **양계**

## 보령산업은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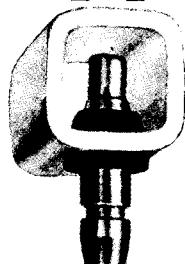
◎고품질 ◎저렴한 가격 ◎국산품 입니다.

부리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니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 보령산업 개발

사무실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31-27  
전화 : (02)461-7887 (주·야)